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각자대표 체제 전환… 글로벌 도약 시동

오상훈 대표선임, 유종만과 투트랙 경영·글로벌, R&D 역할분담 명확
이병건·방영주 등 거물급 이사회
글로벌 임상·라이선싱 전략 강화
ATROM-C 임상 본격화 전환점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2026년 시작과 함께 경영 체계를 정비하고 업계 거물급 인사들을 이사회에 영입하며 글로벌 도약의 기반을 새롭게 다진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오상훈 사내이사를 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유종만 대표이사와의 각자대표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향후 유종만 대표가 연구개발(R&D) 및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신임 오상훈 대표는 경영 전반과 글로벌 사업, 중장기 재무전략 등을 총괄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이번 인사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실제 의료 시장의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훈 신임 대표는 삼성전자 전략기획팀장을 거쳐 삼성화재 미국법인 대표, 차바이오텍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



오상훈
신임 대표



이병건
비상무이사



방영주
비상무이사

다. 삼성이 조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사업확장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 축적했으며, 미국 헬스케어 조직과 한국의 바이오 기업의 효율적 사업운영과 성과를 실현하는 사업구조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현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으로서 바이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 대표의 합류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연구 중심 벤처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훈 대표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지속적인 전문 인

력 영입, 경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파괴적 혁신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대표이사 선임과 더불어 바이오 업계와 의학계의 석학들을 이사회에 영입하며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신규 선임된 이병건 비상무이사는 녹십자와 중근당홀딩스, SCM생명과학, 지아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상징적인 인물이다. 현재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이사장과 미국 플래그십파이오니어링(Flagship

Pioneering) 특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병건 이사는 앞으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서 풍부한 신약 개발 경험과 글로벌 라이선싱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톰(ATROM)-C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해외 진출 전략을 전수할 예정이다.

함께 합류한 방영주 비상무이사는 항암 치료 및 임상 시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수많은 글로벌 임상을 주도해왔다. 방 이사의 영입으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재생치료제의 임상 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전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경영진 개편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기술, 경영, 임상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갖추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전망되는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 ‘ATROM-C’의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침샘·간·자궁내막 등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GC녹십자

‘리브말리엑’ 건보 적용

알라질증후군 치료제 첫 사례

GC녹십자는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엑(성분명: 마라릭시벳)’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고 4일 밝혔다. 알라질 증후군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국내 첫 사례다.

리브말리엑은 담즙산의 장내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춘 혁신 치료제다. 알라질증후군 환자에서 담즙정체성 소양증을 개선하는 데 처방된다.

리브말리엑 임상시험군과 외부 자연사 코호트(GALA)를 비교분석한 결과, 리브말리엑 치료군에서 간이식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사건 발생 위험은 비교군 대비 약 70% 감소했다.

알라질증후군은 소아 희귀질환으로, 극심한 소양증, 성장 장애 등을 동반하며 만성 간질환을 유발한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 간이식과 같은 고위험 수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페이스, 유럽서 바이오시밀러 직판 확대

바이우비즈 유럽 직접 판매 개시
유럽 내 직판 제품 4종으로 확대
제품·시장별 맞춤형 상업화 전략

삼성바이오페이스가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사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 직접 판매 전략을 확장 적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페이스는 올해부터 유럽에서 안과질환 치료제 ‘바이우비즈’를 직접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바이우비즈는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이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다. 습성 연령유관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안과 질환 치료에 쓰인다.

이 제품은 지난 2021년 8월 유럽 의약품청에서 첫 번째 루센티스 바이오시밀



바이우비즈

/삼성바이오페이스

러로 판매허가를 획득했고 그동안 유럽에서 마케팅 파트너사 바이오젠을 통해 판매돼 왔다. 이후 삼성바이오페이스는 지난해 10월 바이오젠과 ‘바이우비즈 유럽 상업화 권리’를 이전하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판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페이스는 유럽 내 직접 판매 제품은 이번 바이우비즈를

포함해 총 4종으로 확대하게 됐다. 앞서 골질환 치료제 ‘오보텐스’, ‘엑스브릭’ 등 2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유럽에서 직접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페이스는 2023년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를 시작으로 유럽 의약품 시장에서 상업화 역량을 쌓고 있다. 기존 진행하고 있는 개발·임상·허가에 이어 상업화 단계로 사업 수행 범위를 지속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페이스는 2016년 현재까지 총 10종의 제품을 상용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장 처음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베네팔리’를 선보인 후 면역학, 종양학, 안과학, 혈액학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입지를 다졌다.

삼성바이오페이스 측은 단순 직판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제품별 및 시장별 ‘맞춤형 상업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제품에서 최적의 판매 전략을 수립하며 직접 판매를 결정하는 등 향후 해외 현지 시장 기회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제를 내재화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페이스 커머셜본부장 린다 최 부사장은 “바이우비즈의 유럽 직접 판매 개시는 삼성바이오페이스가 유럽 시장에서의 상업화 역량을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현장 및 의료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환자들의 바이오시밀러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녹십자 임직원들이 ‘리브말리엑’ 국내 첫 건강보험 적용을 기념하고 있다. /GC녹십자

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

‘리바로페노’ 선보여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리바로페노는 피타바스타틴과 페노피브릭산을 하나의 제형으로 결합한 경질 캡슐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과 중성지방(TG)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 고위험 성인 환자 중 피타바스타틴 2mg 단일요법으로 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TG 수치가 높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수치가 낮은 환자 치료에 처방 가능하다.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양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LDL-C와 TG를 함께 관리하는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춘 스타틴계 약물 치료로 LDL-C가 조절되더라도 TG가 높고 HDL-C가 낮은 경우에 쓰인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출시한 피타바스타틴 기반 이상지질혈증·고혈압 3제 복합제 ‘리바로하이’에 이어 리바로페노를 발매하며 피타바스타틴 기반 ‘리바로 패밀리’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마데카 PDRN’ 올리브영 선봬

피부장벽·열감·붓기·속건조 개선

동국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액티브 리뉴 PDRN’ 기획세트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획세트는 본품 50ml에 15ml를 추가 구성했다. 해당 제품은 전문적인 피부 관리 후 민감해진 피부를 복합 관리할 수 있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열감, 붓기, 색소침착, 자극 받은 피부장벽, 속건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센텔라시아티가 정량추출물과 5가지 P

DRN 성분을 함유한다. 각 다른 분자량을 가진 연어·병풀·어성초·마린·장미 PDRN 등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담당자는 “최근 피부 관리 후 애프터 케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피부 고민에 적합한 크림을 선보이게 됐다”며 “동국제약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피부장벽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액티브 리뉴 PDRN’ 기획세트는 CJ올리브영 온라인몰을 시작으로 주요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이청하 기자

파스쿠찌 “매달 브랜드데일로 혜택 강화”

매월 1~3일, 프로모션 할인 제공

SPC그룹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정통 카페 브랜드 파스쿠찌가 브랜드데이 프로모션 ‘파스쿠찌 데이’를 진행한다. ‘파스쿠찌 데이’는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해피포인트앱·해피오더앱 등에서 할인 쿠폰과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 행사다.

먼저, 해피포인트앱 내 ‘선물하기’에서는 커피와 조각케이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어링 세트’와 인기 음료 4종을 최대 23%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페어링 세트는 아메리카노(2잔)와 ‘딸기 트리’ 조각 케이크, 아메리카노

(1잔)와 ‘오! 마이 캐롯’ 조각 케이크 등 2종이다. 딸기말차셰이크·딸기크림치즈셰이크·히니고구마라떼·월넛라떼샷 등 음료도 혜택가로 구매 가능하다.

해피포인트앱에서는 매장에서 조각 케이크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R) 무료 증정 쿠폰을 제공하고, 해피오더앱을 통한 1만원 이상 픽업 주문 시에는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이용 고객을 위해 ‘신한 마이샵’에서 1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제휴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원선선 기자 tree6834@